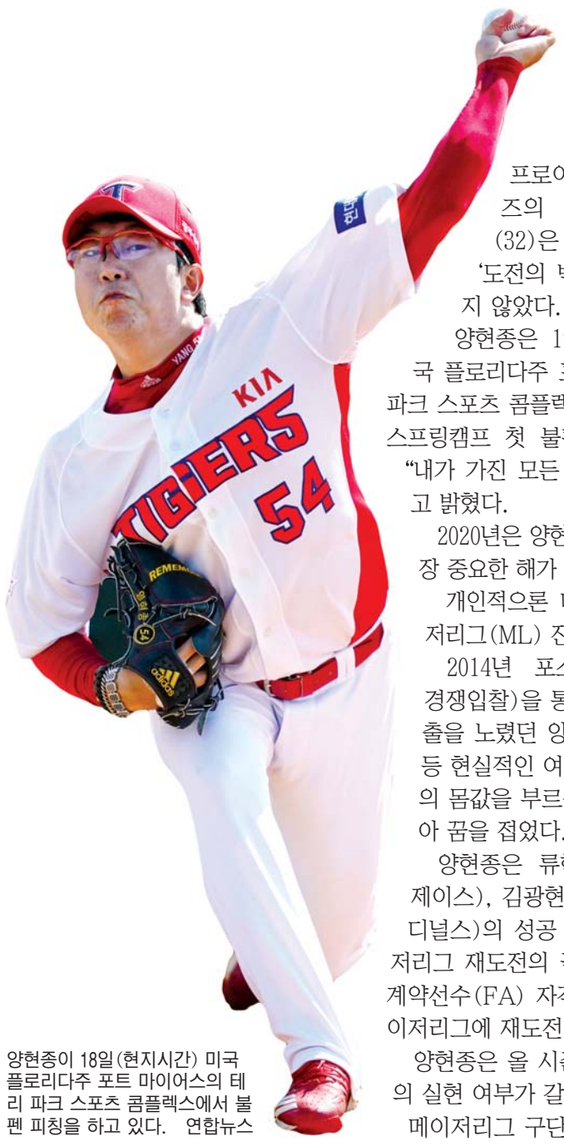
양현종 "ML·캡틴·올림픽… 짐 이겨내겠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서 만난 '에이스 양현종'의 포부
"언젠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공을 던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양현종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의 테리 파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32)은 몇 겹으로 둘러싼 '도전의 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양현종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테리 파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구단 스프링캠프 첫 불펜 피칭을 마치고 "내가 가진 모든 짐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2020년은 양현종 선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 진출 여부가 달렸다.

2014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던 양현종은 홍보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 탓에 기대 이상의 몸값을 부르는 팀이 나오지 않아 꿈을 접었다.

양현종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성공 사례를 보며 메이저리그 재도전의 꿈을 굳혔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내년 메이저리그에 재도전 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올 시즌 활약에 따라 꿈의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벌써 양현종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올해 첫 불펜 피칭을 한 이날도 토론토의 고위급 인사 두 명이 현장을 찾아 양현종의 모습을 지켜봤다.

양현종은 "언제부터인가 개인과 팀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해 공을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데, 꼭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올 시즌 많은 스카우트가 스피드건을 들고 경기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만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김광현과 관련한 기사를 꼼꼼히 읽고 있다. 그는 "(김)광현이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도전의 길을 담대하게 걷겠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꾸고 있지만, 소속 팀 KIA에 관한 애정을 줄인 건 아니다. 그는 최근 맷 윌리엄스 감독 등 코치진의 권유를 받고 새 시즌 '캡틴' 중책을 맡았다. 에이스 겸 주장이라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양현종은 스프링캠프에서 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불펜 투구를 마친 뒤 후배들의 투구 모습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양현종은 "가볍게 밸런스 잡는 법과 공을 던지는 느낌에 관해 말해준 것"이라며 "성장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메이저리그 등) 시즌 후의 일은 그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은 내위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즌 중반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해야 한다. 지난해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에서 함께 '원투 펀치'로 활약했던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로 도쿄올림픽 출전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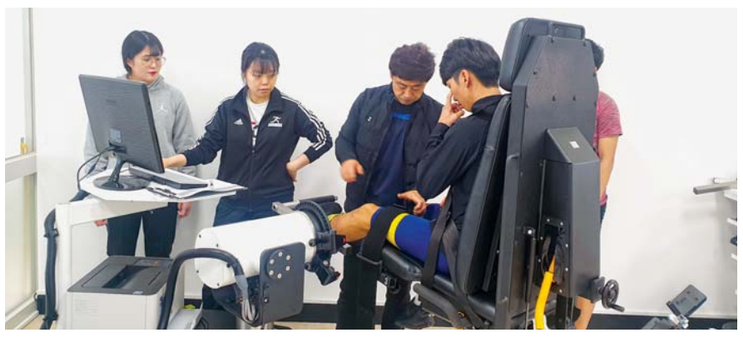
사실상 양현종이 중요한 경기에 등판해야 한다. 양현종은 "나 홀로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는 모두 훌륭한 기량을 가졌다. 큰 부담을 갖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현종은 자신의 말처럼 여러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공을 던지는 데만 집중했다.

포수 백용환과 짝을 맞춰 직구 27개, 변화구 3개의 불펜피칭으로 2020년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불펜 피칭을 지켜본 서재응 투수코치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양현종의 몸 상태가 매우 좋다"며 "계획대로 훈련한다면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양현종의 2020시즌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전지훈련팀과 도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주스포츠과학센터 제공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체력측정 지원 강화

전지훈련팀·도내 선수 대상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전지훈련팀과 도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제주스포츠과학센터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제주를 찾은 13개 팀, 138명의 선수가 센터를 방문해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지난 한 해 10개 팀, 119명이 지원 받았는데, 이미 이를 넘어선 성과다.

제주스포츠과학센터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훈련 중인 경기도 화성시청 육상팀을 비롯한 전지훈련팀의 예약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15개 팀 150여 명의 전지훈련 선수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체력 측정은 제주스포츠과학센터 홈페이지(https://css.kspo.or.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064-717-7181)로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54회 도민체육대회' 표어 공모

3월 12일까지 참여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제54회 제주도민체육대회' 표어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1인당 3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도민 화합과 단결, 스포츠축제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작품 접수는 이메일(0376099447@naver.com) 또는 제주도민체육대회 준비기획단을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단(064-717-7134~6)으로 문의할 수 있다.

당선작은 3월 16일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도체육회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개와 우수작 3개 등 모두 4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작은 대회 구호로 활용된다.

제54회 제주도민체육대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주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유년부와 초·중·고등학교부(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부), 일반부(읍면동, 동호인클럽대항, 장애인), 재외도민부로 나뉘어 52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김지은기자

모리뉴 "흥민, 이번 시즌 복귀 확신 못해"

손흥민 오른팔 골절·수술 회복까지 2개월 정도 예상 올 시즌 막판 복귀할 수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부상 상태를 밝히는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조제모리뉴(포르투갈) 감독이 오른팔 골절상을 당한 손흥민의 '시즌 아웃'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모리뉴 감독은 RB 라이프치히(독일)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20일 오전 5시)를 하루 앞둔 19일 영국 런던 외곽의 엔필드 훈련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손흥민의 이번 시즌 복귀를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16일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킥오프 30여초 만에 빠른 드리블로 역습에 나서던 순간 중앙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강하게 충돌한 뒤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은 아픔을 참고 풀타임을 뛰면서 멀티골을 기록,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오른팔 골절 소식과 더불어 이번 주에 수술대 위에 오른다고 발표했다.

2017년 6월에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일원으로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원정에 나섰다가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넘어지다가 오른팔로 땅을 짚은 뒤 '전완골부 요골 골절'을 당한 바 있다.

손흥민은 당시에도 수술을 받은 뒤 그라운드 복귀까지 2개월이 소요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골절상인 만큼 회복에 3년 전과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4월에나 복귀가 예상된다.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5월 17일 열리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시즌 막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AT마드리드, 챔스 16강 극강 리버풀 1-0 제압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극강' 리버풀을 안방에서 제압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마드리드는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사울 니게스의 결승 골을 앞세워 리버풀을 1-0으로 물리쳤다.

마드리드는 홈에서 치른 유럽 클럽 대항전 최근 13경기에서 12승으로 안방 강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성 길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북초등학교 제14회 동창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성 길
(34대 회장)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JC특우회
서귀포JC특우회 회장 김 창 현 외 회원일동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서귀포청년회의소 회장 양 두 훈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북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홍 희 근
제16대 북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 강승찬 회장 외 회원일동
(재)서울 한림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 고태범 회장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교육학박사

윤 두 호
(파평윤씨 제주도 종친회장)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파평윤씨 계충공파 문중회
회 장 윤 충 희 외 회원일동